

## 초현실주의와 허무주의

- 쉬르레알리스트 브르통의 시 《가용성의 생선》을 중심으로 -

자유기고가 김춘경

프랑스의 시인 브르통(A. Breton : 1896~1966)은 초현실주의(超現實主義)의 주창자이며, 동시에 그 이론가였다. 탕쉬블레 태생인 그는 1919년에 프랑스의 소설가 겸 시인 아라공(Louis Aragon) 등과 다다이즘운동을 일으켰고, 1924년 초현실주의를 처음으로 선언했다. 한때 공산당에 들어갔지만 곧 탈당했고, 오스트리아의 의사이며 정신분석학(psychanalysis)의 제창자 프로이트(S. Freud : 1856~1939)의 영향하에 무의식세계를 탐구하여 <자동기술법>에 의한 시(詩)의 창작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꿈과 현실의 교착(交錯)을 유기적으로 그렸다. 그의 작품에는 《자기장(磁氣場)》, 《초현실주의 선언》, 《나라》 그리고 《연통관(連通管)》 등이 있다.

다다이즘(Dadaism)은 제1차 대전중에 일어나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유행한 예술상의 초현실주의 운동으로, 허무주의와 비합리 및 무정형(無定形)의 표현을 특색으로 삼았다.

여기서 말하는 무의식(無意識)의 가장 넓은 뜻으로는 현재 의식역(閥) 속에 없는 정신현상의 모든 것을 말한다. 또 반사나 자동화한 활동 및 그밖의

생리적 과정일체를 지칭한다. 이것에는 보통 의식이 수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것은 프로이트와 그밖의 정신병리학자들의 요법으로 의식하에서의 억압된 심리과정을 일컫는다. 이것은 최면암시에 의한 상기(想起)나 꿈·망각·실착행위(失錯行爲) 따위의 분석, 특히 정신분석 등에 의하지 않는 한 의식화 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우기 이는 여러 가지의 행동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생각에 의거하여, 각성시에는 의식되지 않는 감정이나 기억을 최면에 의하여 무의식(unconsciousness)의 심층에서 떠올려서 분석하는 임상치료가 행하여진다.

또한 프로이트는 인격의 영역중에서 자아(自我:ego)는 의식적이지만, 이드와 초자아는 무의식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을 명확하게 구별하였으나, 현재의 정신분석학에서는 그 차이를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상위 자아(自我)라고도 일컬어지는 초자아(super-ego)는 이드(id)의 여러 충동을 무의식단계에서 통어(通御)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드(id)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용어로, 보통 무아의식(無我意識)으로 번역되는데, 정신의 밑바닥에 무의식적으로 존재하는 본능적 에너지의 원천으로 쾌락원칙(pleasure principle)에 의해 지배된다. 이는 독일어 에스(es)를 번역한 것인데, 영어의 3인칭 대명사 it에 대응하는 라틴어이다. 프로이트는 인격의 전체 구조로서의 심적장치(心的裝置)를 이드·자아(自我)·초자아(超自我)의 3가지로 구별하였는데, 자아는 의식과정에 속하고, 이드는 무의식과정 속의 혼돈된 심적 에너지로 보았다.

이드의 내용은 유전적 그리고 체질적으로 개체가 가진 본능적 리비도 곧 충동이 출생시를 포함한 유아체험(幼兒體驗)에서 억압되어 있는 것이다. 발달적 측면에서 본다면 심적 장치는 미분화(未分化)이며 혼돈된 이드에서 시작하여 그 일부는 구조화한 자아로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초자아는 자아에서 분리되어 사회의 윤리기준을 내면화한 결과로서 성립된다.

리비도(libido)는 좁은 뜻으로는 성적 충동을 발동시키는 근원적인 힘을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인간 행동의 동기가 되는 심리현상의 근원적인 힘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성적 충동을 이르는데, 라틴어의 욕망, 삶, 사랑(desire: life, love)에서 유래했다.

이드는 본능적으로 쾌(快)를 구하며 불쾌(不快)를 피하려고 하는 에너지로 가득차 있다. 그리하여 엄밀한 쾌락원리를 따라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투쟁을 낳게 하며, 따라서 정동적(情動的)이며 비논리적이다. 이에 비해 자아는 논리적이고, 그리고 현실원리를 따라 의지적(意志的)으로 쾌락을

추구한다.

이에 비해 자아(自我 : ego)는 자기를 의식(意識)하는 하나의 실체, 곧 의식자가 다른 의식자 및 대상이나 비아(非我:non-ego)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는 자칭(自稱)이다. 사유(思惟)·감각(感覺)·욕망(欲望)·의지(意志) 따위 일체의 심적 상태 속에서 가장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삼라만상(森羅萬象)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한 개의 인격체를 말한다.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자기 자신에 관한 각 개인의 의식이나 관념이다. 곧 활동의 느낌, 같은 순간에는 한 사람이라는 의식, 시간이 경과하여도 동일(同一)하다는 의식, 외계(外界)와 타인에 대하여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의식의 네 가지 측면이 있다고 분석된다. 이 자아 대칭에 서있는 것이 비아(非我 : non-ego)인데, 나 이외의 일체(一切)의 것을 말한다. 곧 자아의 작용의 대상(對象)으로서 존립하는 세계, 곧 자연(nature)인 것이다.

이에 비하여 초자아(超自我)는 정신분석학 용어로, 이드(id)나 자아와 더불어 정신의 구조를 구성한다. 정신의 발전과정에서, 부모의 가르침이나 학교에서의 훈육과 사회의 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내부에 받아들여져서 사회적 규범이 된다. 결국 초자아는 죄악감, 죄책감이나 양심의 원천이 된다.

초현실주의(超現實主義 : surrealism)는 1924년경 프랑스의 시단(詩壇)과 화단에서 일어난 새로운 예술론의 하나다. 초현실적인 자유로운 상상을 스스로 없이 표현하며, 극히 주관적인 경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서양화파(畵派)

의 하나인 초현실과는 초현실적인 몽환(夢幻)의 세계를 상상으로 표현하는 화파를 지칭하기도 한다. 쉬르레알리즘, 곧 초현실주의는 뭐니뭐니해도 그 뿌리를 다다이즘에 두고 있다. <다다(dada)>란 아무 뜻도 없다는 말이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다다이즘(dadaisme)은 20세기 초반에 일어난 유럽의 문학과 미술운동의 하나였다. 1916년에 스위스 취리히에서 차라(Tzara) 등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체의 제약을 거부하고 기존의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무질서, 무방향의 운동이었다. 이것은 극단적인 반이성(反理性)주의로서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만연되었던 사회불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브르통, 아라공, 엘뤼아르, 파카비아, 윌젠백 등이 의욕적으로 참가하였으나, 그 중요 세력이 뒤이어 일어난 쉬르레알리즘을 제창함으로써 대체로 1924년에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이야기 했듯이 브르통은 초현실주의 기수(旗手)였다. 그의 《가용성(可溶性)의 생선》(14)의 첫머리는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된다.

“나의 무덤은 묘지가 닫힌 후에 한 척의 배가 되어 바다를 쓴살같이 달린다. 이 배안에는 아무도 없다. 오직 예외인 어느 밤의 덧문을 통해서 느닷없이 나타나는 양 팔을 든 여자가 있다. 그것은 이를테면 일종의 뱃머리 초상으로 하늘을 나는 내 꿈속에 달라 붙는다. 또 다른 장소, 어느 농장의 안마당 같은 곳에서 한 여자가 세탁비누를 푸른 포말로 곡마를 하고 있는데, 그 포말은 공중에서 손톱처럼 불타고 있었다. 여자들 눈썹의 닷, 이것이 너희들의 목적이었구나. 이러한 하루는 바다 위의 긴 축제에 불과하였다. 창고가 뜨든지 가라앉든지, 전원에서의 도

약이 문제로다.

최악의 경우 가령 비가 내린다 해도 목적이인 저기 지붕없는 건물에서라면 기다리는 것도 참을 수 있으리. 왜냐하면 저런 집은 여러 모양의 새와 날개 달린 낱알 따위로 되어 있으니 말이다. 그 주위의 울타리는 나로 하여금 꿈으로부터 얼버무리기는 커녕, 바다 쪽이 잘 이어져 있지 않은 감상적인 광경 쪽이다. 그리고 바다는 두 명의 자선 수녀와 같이 점점 멀어져 간다.”

현대의 시를 논함에 있어서 도무지 쉬르레알리즘을 누구도 빼놓을 수가 없다. 그후에 줄리앙 그라크나 앙드레 피에르 드 반디아르그의 산문이나 소설도 1960~1970년대의 드니 로슈나 자크루보의 작품들도, 1920년대의 쉬르레알리스트들의 모험과 열정과 그 어떤 본질적인 관계가 없이는 감히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더구나 쉬르레알리즘의 영향은 단순히 시나 문학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영화나 회화의 혁신이 쉬르레알리스트들의 과감한 모험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충동을 받아 전개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쉬르레알리즘이 그 원점에 있어서 <시의 혁명>으로서 출발하였고, 또한 항상 그것을 구원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어쨌든 이 《가용성의 생선》은 쉬르레알리즘 작품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작품이다. 특히 이 <14>의 시작은 한 편의 시의 시작으로서나 하나의 자동기술의 시작으로서도 여러가지로 의미가 깊고 흥미롭다. ♣